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2월 5일 (제112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침 6시경, 나는 기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의 벨이 계속 울렸다. 급한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호주에 있는 선교사였다. 그 선교사는 울먹이며 내게 말했다.

“목사님, 기도원의 사과농사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우루과이의 이현숙 선교사는 열매를 많이 맺어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데, 저는 작년 기도원의 사과처럼 열매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제 잘못이요, 제가 게으른 탓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열심히 열매를 가꾸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어느 주의 종의 이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종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시오. 모든 비행경비 및 생활 전반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종과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와 통화하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놀랐다. 사실 호주 선교사가 보내 달라는 주의 종은 지금까지 4년 동안 근신 중이다. 자숙하며 회개할 일이 있어 기도원에 머물고 있다. 나는 그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영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산에 올라가 나무들이 성도다 생각하고 영어로 설교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호주에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호주 선교사는 그 종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심히 조급하다. 뭐든 빨리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신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다. 요셉이 꿈 풀이를 해준 술관장이 2년 후에나 그를 기억하여 바로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어쩌면 기도원에 있는 그 종은 답답했을 수 있다. ‘언제나 기도원에서 나가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사면되나, 내 장래는 어찌 될까?’ 노심초사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충분히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뿐이다. 그러나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힘들다

“열매를 따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린 자다.” 곧,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한다. 오직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는 목사님의 18번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을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생물학적인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참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의 모든 성장과정에 먹이고, 가르치며 동고동락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

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 그 인생이 되는 꼬라지가 없게 됩니다. 인생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니 악하고 게을러 핑계나 대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망하게 합니다.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무슨 일든 먼저 안 되는 열두 가지 핑계부터 찾습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나갈 생각조차 안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잠26:13). ‘동창이 밝았느냐

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 있으리라’(마25:26~30). 그는 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이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주인에게 델 핑계만 생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대충 말로 때우면 되고, 그냥 잔소리 좀 들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생각이 대충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성공한 자는 문제 앞에서 항상 방법을 찾으려 애씁니다. 길은 있다는 생각, 찾으면 찾는다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KBS88체육관 주일에배 광경

문이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일도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며 수고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없이는 단 열매를 맛볼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씨를 뿌리는 일보다 가꾸는 일이 힘들다며 매사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다.

“씨를 뿌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힘들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기르기가 더 힘듭니다. 목사 안수를 주는 일보다 목사다운 목사로 길러내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 씨를 뿌리면 그 씨만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납니다. 예뻐서 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곧 잡초가 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잡초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잡초가 곡식을 먹어버려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넘어 사래 긴 발 언제 갈려 하나니라는 예전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조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시작해도 모자를 판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니 가난이, 곤핍이 물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늙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6:9~11).

예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를 들고 즉시 나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종은 엄정 칭찬하셨지만,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은 자를 왜 그토록 격렬히 질타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

번민하며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무책임한 자들은 문제를 주면 일단 벗어날 핑계부터 찾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자리 잡아 그 속에서 왕 노릇하고 있으니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시1:1).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하고 길쌈을 매주며 해충을 잡아잡니다. 기쁨의 단 열매를 기대하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합니다. 가꾸는 일은 물론 힘들고 지난한 일이지만, 모든 눈물과 수고는 반드시 단 열매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위드코로나, 단계적 원상회복 조치로 50% 대면예배 실시

주일에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말1:1~2:9)

대충이란 군에 잡히면 망한다

12월 22일이면 목회 37주년이 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다 오늘의 제가 된 것은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내 삶에서 대충이란 군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충'이란 대강대강, 적당히,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 건성건성, 정성을 들이지 않고 날림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이란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대충을 대신할 대(代), 벌레 충(蟲)으로 풀어 봤습니다. 내 인생을 벌레가 대신 다 먹어 치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애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코를 줄줄 흘리고 다녔고, 뼈적 말랐었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했지만, 몸 안에 회충이 가득해서였습니다. 1년에 한 번인가 학교에서 산토닌이라는 약을 받아먹고 대변을 보면 회충이 잔뜩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충이란 군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회충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먹어치워 몸이 부실한 것처럼, 대충이란 군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이 부실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재(人災)라고 부른 것들이 다 대충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일, 땅이 꺼지는 싱크홀(sinkhole) 등, 모두가 대충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대충이란 군에 잡히면 인생이 이 꼴 납니다.

차선은 없다 최선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대충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4).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 산에 따로 성전을 지어 예배하며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드러지는 방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대충 드리느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꼭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헌금을 동냥하듯 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비대면예배 때 예배 영상은 틀어놓지만, 커피도 마시고, 온갖 참견 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렸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향한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들은 그 아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너희가 눈 먼 회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말1:6~8). 총독 앞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해도 살아남기 어려울진대, 하물며 하나님 앞에 대충, 대강대강, 눈 가리고 아웅이 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말1:9~10),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퐁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퐁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말2:2~3). 그런 예배는 아예 안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저주와 함께 얼굴에, 인생에 퐁을 발라버린다는 겁니다. 되는 게 없고, 수치를 당케 하신다

는 겁니다.

제가 미국 집회에 갔을 때, 성의 없이 대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회 후에 좀 쉬려고 들린 도시에서 예정에도 없는 예배를 부탁하기에 기도하지 않고 가서 대충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뇌출혈로 눈이 터졌습니다. 그때 진짜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한 사람이 모이든, 열 사람이 모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주말이면 항상 은행에 가서 뺏뺏한 새 돈으로 교환해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느 사람은 동냥하듯 그냥

헌금함에 넣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하나님은 어느 것을 가납하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대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마6:7)고 하였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하였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린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 인생이 꼬부라지고, 뒤틀 듯 뒤틀 듯 하다 안 되고, 병드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일진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도 노래자랑 하듯 한 것은 아닌지, 안내를 설 때도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마22:37~38)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하나님께 뿐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대충하면 안 됩니다. 그저 시간이나 때우다가 되 근시간 되면 총알처럼 나가는 자, 사장 눈만 피해 얼렁뚱땅하는 자, 그거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엡6:5~7).

이 이야기는 설교 때 많이 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웃백이란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점장이 가만히 그 소녀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느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 세제로 닦고 물에 행구어 바로 선반에 올려놓는데, 그 소녀는 물기에 젖은 그릇을 꼭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올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두 번 할 일 만들지 말고 철저히 하라고 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소녀가 비록 일의 속도는 느렸지만, 완벽히 마무리를 해놓으니 더 손떨 것이 없었습니다. 점장은 지사회의에 나가 이 사례를 보고하였고, 발표를 들던 회장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에도 철저히, 철두철미(徹頭徹尾)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히3:14),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3:15).

거룩이 딱정벌레로 인해 죽는답니다. 거대한 독도 개미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네요. 비싼 실크 옷도 보이지도 않는 좀 때문에 구멍이 나고요. 거대한 인생도, 잘나가던 인생도 대충이란 군 때문에 삼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이란 군을 꼭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



주식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현금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완벽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조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런 결정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기란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최적의 매수타이밍은 주가가 정말로 싸게 거래될 때만 찾으면 되나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인간 심리상 당초 믿음을 잃고 조급해지면 놓치기 십상이지요.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면 주가는 과도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낙관적인 기대로 훨씬 앞서 낮은 주가수준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과도한 평가 조짐이 나타날 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매도를 위해서는 처음 주식을 매수했을 때 기대했던 우호적인 여건 변화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친다면 반드시 매도를 고려해야 하며, 매도로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이때는 기계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가하락으로 인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났다면 매수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로브는 투자손실은 반드시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손실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훨씬 전에 재빨리 없애야 합니다. 손실을 본 주식을 제거한 후에는 일단 그 거래를 잊어야 하는데, 이는 앞

으로의 투자판단에 절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즉 곧바로, 혹은 한참 뒤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앞서의 매도가격보다 주가가 더 높아졌다 하더라도 매수포지션을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감정은 완전히 지워야하며 이러한 손절매원칙은 로브가 항상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주식시장의 유일한 원칙이지만 실제 투자를 해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투자수익을 거둬들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렵지만, 일단 6~12개월 사이에 투자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기회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현금을 들고 상당기간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로브가 늘 강조하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 투자할 수 있도록 예비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항상 매수여력을 비축해두어야 하는 것도 현재 보유주식의 매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당초 예상한 정상적인 수준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 과대평가되면, 이후에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꾸준히 보유물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열매 없이 발만 버리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내고 포도나무를 심어 이익을 남기신 예수님의 경제학을 적용해보시며 기다림으로 소망을 이루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서울교회 담임인 이시대 목사님은 11월 25일 노량진 교육관에서 서울교회 교역자들을 소집하고 이렇게 당부하셨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년 동안 세계 항공사 중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대한항공이 유일하합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겁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구조를 변경하여 전 세계에 화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대한항공은 상황을 치고 나간 것입니다. 교역자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준 슬로건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 상황을 치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대한항공처럼 돌파구를 찾아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행로법칙에 대해 말씀하시죠? 저도 행로법칙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

려 있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게으름이란 놈이 시대나 상황을 탓하게 한다는 거죠. 찾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코로나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잘 견뎌왔습니다. 이것은 총회장 목사님의 강한 훈련 덕분이요, 일찍부터 영상예배를 실행해온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치고 나가야 합니다. 예배 때에 빈 좌석을 보시지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성도들에게 동의하지 말고 독려하고 강권하십시오. 올해 안에 원상회복을 목표 삼아야 합니다. 내 교구에 누가 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파악하고 보고하세요. 예전에 알려드린 ZOOM을 활용하여 교구를 활성화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 중에도 여전히 출석률이 좋은 교구에 가서 배우세요. 하고자 하면 됩니다. 대한항공처럼 말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말고, 나중을 기다리지도 말고 지금 치고 나가면 길은 열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 아니 그것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수중심교회를 상상해보자. 그 궤도를 향하여 우리 달려보자!

신요수 전도사

:: 소망의 언덕 ::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는 천국

역전하려면

얼굴의 절반이 붉은색 큰 점으로 뒤덮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났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친구들의 놀림으로 늘 위축되어 살아가던 집사님이 성인이 된 어느 날, 밤새도록 주먹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점을 지워달라고 한없이 울었다. 그때 자신의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본 그날 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얼굴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사랑과 눈물로 마음속의 상처가 지워진 그녀는, 이후 다른 쪽 얼굴 대수술을 하게 됐을 때도 원망 대신 ‘내일 밤 저 아름다운 별을 또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소한 감사거리를 찾으며 고통을 이겨냈다고 고백한다. 악한 마귀는 늘 남과 비교하며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작은 것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서로 비난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해간다. 그들의 목적은 이미 택하심을 입

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영·혼·육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요10:10).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 값까지 주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살전5:16~18). 심지어 우리 생각에는 감사하고 기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라!’ 하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하신다. 그것이 절망과 불평으로 막 막힌 우리 영혼의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치료제이고,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우리 영·혼·육을 윤택하게 하는 근원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오늘 하루 감사 거리를 찾고, 작은 것에 기뻐하다 보면 어느새 악한 마귀의 계교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는 항암제이고 방부제이자 소독제이며 또한 치료제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최근 예배 때마다 불린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곡이다. 이 곡이 끝나면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섬기는 부서가 학생부이다 보니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한 학부모님께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었으니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그러자 그분은 멧쩍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가 조금 풀리니까 그동안 못했던 일거리들이 밀려들어 오네요. 잠시 못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너무 충격이었다.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는 일거리가 없어 무슨 일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던 분이 이제는 코로나가 풀려 모일 수 있게 되니 일거리가 너무 많이 밀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성도님이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에 섬기는 왕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어도 기도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기도했기에 포로의 신분이지만 대제국에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역전!’ 얼마나 마음 뛰는 일인가. 역눌렸던 마음의 한이 터져 날아갈 것만 같은 시원함을 주는 단어 아닌가. 그러나 아무나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라토너가 역전하려면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야구선수가 역전 홈런을 치려면 배트를 휘두르는 것을 멈춰선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삶의 역전을 이루라는 것이다.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역전하라는 것이다. 코로나로 잠시 기도줄을 놓친 이들이 있다면 다시 모이자.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자.

이현승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귀를 기울이세요 ::

꾸준한 노력이 능력입니다

2천여 년 전,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건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열두 제자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밤마다 감람산에 가서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기도했는지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피곤에 못 이겨 졸면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우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천재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쩐지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면 저절로 열을 깨우쳐 별다른 노력 없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 같았거든요.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기보다는 타고난 능력으로 쉽

고 편하게 살고 싶은 심보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학계든 예술계든 스포츠계든 업계를 불문하고 알고 보면 엄청난 노력파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따라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연습하고 노력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더라고요. 저 정도 능력이면 대충해도 잘할 것 같은데 결코 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그들이 이뤄낸 성과보다 그들이 꾸준히 하는 노력이 더욱더 놀랍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를 좋아해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를 찾아보곤 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모든 부담을 온몸에 지고서 그녀가 펼친 피겨스케이팅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지요. 마지막 프리 경기를 끝낸 후 울음을 터트리는 그녀를 보면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얼마나 연습했는지 저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2006년 12월,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을 코앞에 두고 피겨 전용 스케이트장이 보수 공사를 하는 바람에 김연아 선수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아이스링크 한쪽에서 연습

해야 했습니다. 연습장은 열악하고 허리 통증까지 심해져 스텝 연기를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주저앉아 울다가 다시 일어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트리플 점프를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그날 그녀의 어머니는 연습을 그만하자고 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연습시간 2시간을 모두 채우고서야 연습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능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일은 하기 싫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은 받고 싶고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지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매일 습관 따라 기도하셨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기도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만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습관 따라 말이지요. 예수님처럼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는 영생복락의 천국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영혼의 길에서 헤매고 있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Good News

근대 실존주의 사상의 선구자 키에르케고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추위를 피해 남쪽 지방으로 날아가던 철새 떼들이 먹이를 발견하고는 발으로 내려와서 남아있는 옥수수를 배불리 먹고 다시 서둘러 남쪽 지방으로 날아가

고 합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철새 한 마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날아가나?’라고 생각하면서 날아간 새들은 모두가 바보 멍청이요, 자신만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동안 그 넓은 밭을 홀로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맛있는 먹이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고, 홀로 남은 철새는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봄날만 계속될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들만 탐닉하며 살아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우매한 인생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비만, 이제는 장수를 관리할 때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 남성의 42%, 비만 여성의 36%가 정상 체중인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과잉영양으로 비만해져도 각종 성인병과 중풍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제는 미용의 목적이 아닌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비만을 관리해야 한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운동량이 부족하여 ‘확진 자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간 누적된 지방을 어떻게 잘 해결해볼 수 있을까? 비만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메주콩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만을 예방하는데 큰 몫을 한다. 잦은 비만 방지와 미용 및 심신을 강화시키는 장수의 묘약으로 하루 10알을 먹으면 1개월에 변비가 낫고, 2개월이면 잔주름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위장이 안정된다. 두 번째 요구르트와 같은 유

산균 음료는 질리지 않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변비가 개선되고 비만 요인이 제거된다. 세 번째로는 두부가 있는데, 두부의 리놀레산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성인병 예방은 물론 비만 예방에 좋다. 두부 속의 칼슘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에 스트레스 시 폭식하시는 분들은 두부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비만에 좋은 음식습관으로는 식사를 거르지 않기.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간식은 단번에 끊기. 취침 전 식사하지 않기. 식후 2시간 사이 몸 많이 움직이기. 단 음료 피하기. 국수와 라면 피하기. 식사는 천천히 먹되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지 않기 등의 습관이 중요하다. 비만에 좋은 혈자리로 배의 군살을 빼는 데는 ‘천추혈’을 지압한다. 배꼽 좌우 4cm 지점에 엄지를 대고 배 안쪽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누른다. 윗배 군살을 빼려면 배

꼽과 명치 중간에 있는 ‘중완혈’을 지압하고, 아랫배 군살을 빼려면 배꼽 아래에 있는 ‘중극혈’을 자극한다. 옆 배 군살을 빼려면 옆구리에 있는 ‘대맥혈’을 지압하고, 허벅지 군살에는 다리 쪽에 있는 ‘풍시혈’을 지압하며, 종아리 군살에는 종아리에 있는 ‘승산혈’을 지압한다. 허벅지 군살을 빼려면 ‘천정혈’을 지압한다. 이러한 혈자리는 네이버만 검색해보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만에 좋은 운동으로는 복부 군살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허리 군살은 팔굽혀 펴기, 허벅지 군살에는 누워 자전거 타기, 어깨와 등의 군살에는 아령을 이용한 팔운동이, 유산소운동으로는 등산이나 평지만 보 걷기 등이 도움이 된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어렵지 않은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자. Dr. 설재현 집사

매사 여유를 갖자!

동네 단골 약국에 약사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직원 한 명과 함께 작고 소박하게 약국을 운영하십니다. 이 약국을 단골로 이용하는 이유는 ‘여유라는 행복감’ 때문입니다. 솔직히 약사 할아버지는 약을 지으시는 것도 느리고, 계산을 하시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느리십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시며 행복한 미소로 하시는 모든 일에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요즘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등)라는 매체를 공부하며 젊은이들이 종종 하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필자도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은 영상 콘텐츠를 정속도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영시간이 2시간 넘는 긴 영화는 유튜브에서 10분 요약본으로 시청하고, OTT 콘텐츠가 지루하게 느껴져 1.25배, 2배속으로 보는 행위, 즉 TV를 빨리 감기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조급하게 몰아보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 영상 콘텐츠의 포화로 과거 수개월에 걸쳐 1주일에 1회만 나오는 영상들이 하루에 13회차가 모두 공개되는 OTT 시스템 때문이며, 둘째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봐야 하는 영상 콘텐츠는 넘쳐나고 회사 일에, 집안일에 수면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욕심이 삶의 여유를 앗아간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조급과 무리는 동색이라고 말씀하시며 여유(餘裕)란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 시간과 삶의 여유가 있어야 사랑의 여유가 생기고 예수님처럼 배신자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치고 그는 주변 사람을 타박하지 않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과 행복의 비결 ‘여유’를 가집시다! 송현혜

